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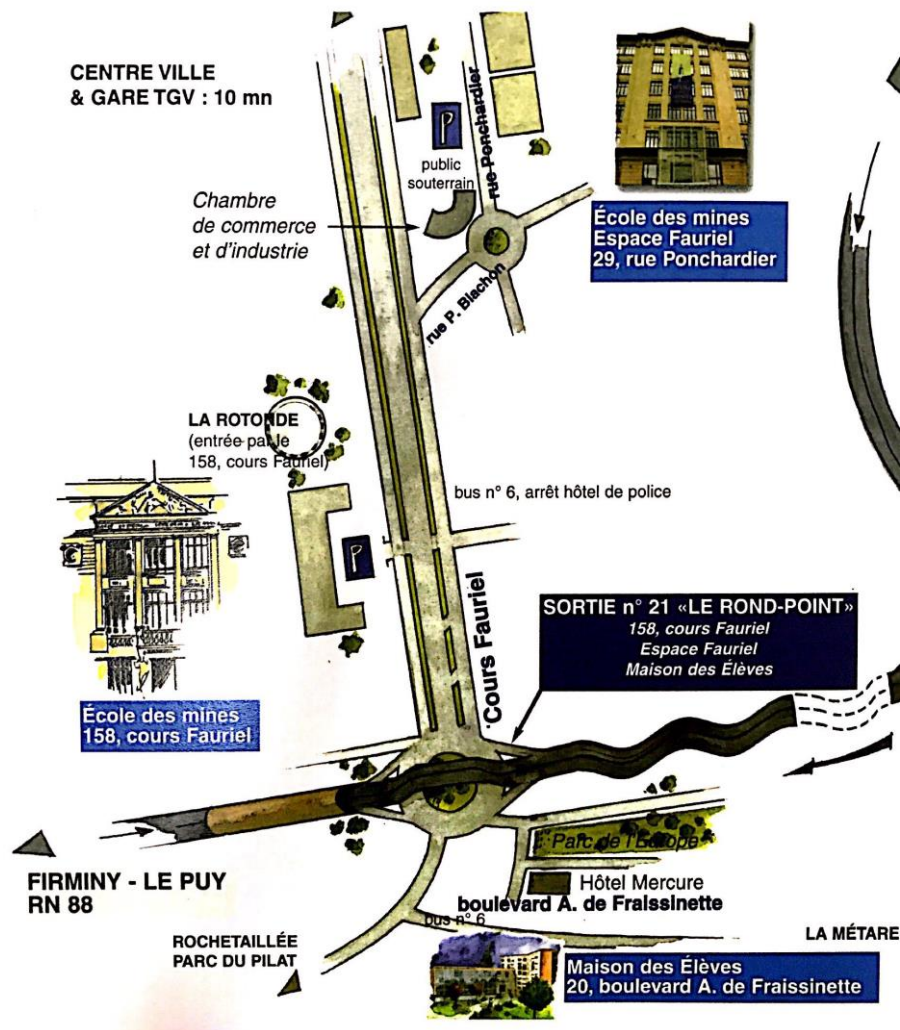
프랑스 EMSE(생테티엔 에콜데민)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산업공학과 오설아

1. 출국 전 준비

공과대학 대외협력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9월 중순 경 공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EMSE 측으로 지원서와 제출서류들(지원동기서, 재학증명서, 어학증명서, 추천서, 여권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교환학생에 대한 최종 선발권은 EMSE 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작성하여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모르는 점이 있으면 EMSE에 계신 한우석 교수님께 메일로 여쭙볼 수 있습니다. 과사에는 별도로 국외수학허가를 위해 수학신청원, 외국대학 수학 추천서,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비자 발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발급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EMSE 입학허가서가 나오는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는 행정처리속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몹시 느리기 때문에 저의 경우 입학허가서가 12월 중순 경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비 서류들을 다 준비해놓고 입학허가서만 나오면 바로 비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발급의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글을 다수 참조하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위 그림이 기숙사, 학교 본관, 학교 건물의 지도입니다.

기숙사의 경우 담당자 분께서 추천해주시는 곳이 Maison des Elèves (ME, www.me-mines-saint-etienne.org/) 인데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에 살고, 파티 등 여러 행사들이 자주 기숙사 안에서 열리며 학교 본관(Ecole des mines 158, cours Fauriel)과 걸어서 10-15분, 제가 주로 수업을 들은 건물(Espace Fauriel) 은 버스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기숙사 측에 문의하셔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원하는 방을 배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마다 청소도 해주시고 관리가 꼼꼼하며 행정실에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프랑스는 택배 받기가 몹시 까다로운데 행정실에서 모든 택배를 대신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숙사에 없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어 이 점도 편리합니다.

출국 전에 기숙사 보증금 송금 등의 이유로 해외송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 카카오뱅크 해외송금을 이용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5,000원이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CAF 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학생들에게도 주거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저의 경우 한 달 월세의 45%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가야 하는 서류를 번역도 받고 공증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기는 하지만, 보조금이 꽤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수록 추천드립니다. CAF 신청 같은 경우는 도착 후 기숙사 행정실에서 거의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구비서류는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CAF 관련 서류 정보도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랑스를 떠날 때 CAF 해지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CAF의 경우는 기숙사 행정실 직원 분이 대신 메일을 보내 해지를 해주십니다.

보험의 경우, 저는 유학생 보험을 한국에서 미리 가입하고 갔습니다. 도착 후에 학교나 기숙사 측에서 보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착 후에는 기숙사 측의 요구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집보험 정도를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방학 중에 학교 담당자 분으로부터 <https://promethee.emse.fr/> 학교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안내 메일이 오는데, 추후에 이 사이트에서 수강신청한 과목들에 대한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SE는 서울대와 달리 매주마다 시간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학교 포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 비밀번호로 <https://sogo.emse.fr/SOGgo/> 학교 메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 출국 전에 메일을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로 이전에 수강신청했던 과목에 관련된 안내 등이 오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학교 관련 사이트는

EMSE 포털: <https://portail.emse.fr/>

ICM 과정 강의계획서: <https://portail.emse.fr/syllabus/ICM/en/>

정도가 있습니다.

2. 도착 및 생활 준비

은행 계좌는 한우석 교수님께서 개설을 도와주시기에 큰 어려움 없이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의 경우 귀국 전 해지할 때 직원이 제대로 해지해주지 않으면 계좌에서 계좌유지비 등이 빠져나가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므로 귀국 전에 꼼꼼히 해지하고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좌 개설 시 가입한 집보험도 따로 메일을 보내 해지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의 경우 프랑스에 다양한 통신사가 있는데, 돈을 좀 더 주고 속도가 빠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도착해서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Free 라는 통신사에서 유심칩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구매도 용이하지만 생테티엔에서는 속도가 원활한데 생테티엔을 벗어나 리옹이나 파리로 가면 속도가 조금 느리고 지하에서 터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저의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시내의 Free 대리점에 가서 유심칩을 구매하고 한 달마다 홈페이지에서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해지할 때 따로 해지 편지를 보내거나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 유심칩으로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따로 로밍없이 한 달에 정량만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 등 몇 개 국가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한다면 과금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잘 찾아보시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에서는 랜선을 제공해줘서 노트북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와이파이가 따로 없어서 공유기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수업

서울대에서는 학사 과정이지만 EMSE는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기관(그랑제꼴)이기 때문에 석사 과정, master degree 프로그램을 듣게 됩니다. 저는 봄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는데, EMSE에서는 봄학기가 second semester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Msc 과정은 강의가 없고 논문준비(Internship)만 한다고 해서 저는 ICM(Master's Degree in Science and Executive Engineering) 2학년 과정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ICM 과정은 불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주이고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많지 않아서 선택지가 적었던 점입니다. 수강신청은 따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서를 보낼 때 한우석 교수님으로부터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목록을 받아 보고, 그 중 선택해서 지원서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추후 변경 불가한 것은 아니고, 도착한 후 듣고자 했던 강의를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언어 강의의 경우 도착했을 때 수업을 배정해주셔서 추가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어 과목으로 Anglais(English), ToolBox1의 international management, ToolBox2의 international finance 이렇게 세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모두 학생 수는 20~25명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고, ToolBox 과목들은 모두 팀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국제 학생들, 프랑스 학생들과 모여서 팀플을 하는 경험이 굉장히 새로웠고 흥미로운 팀플도 많이 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교수님과도 허물없이, 장벽없이 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의 교육환경이 부럽기도 했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석사 과정이지만 수업의 난이도가 대개 그렇게 높지 않아서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평가는 언어 수업의 경우 대부분이 매주 해가야 하는 과제(이력서, cover letter, essay, resume 작성 등)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ToolBox1, 2의 경우 시험도 한 번 보고, 팀프로젝트 발표들로 평가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4. 생활

기숙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콜로 파티가 열리고, 각종 행사가 정말 자주 열리는데 이 모든 알림이 위에서 알려드린 학교 메일로 옵니다. 메일을 보고 가고 싶은 행사는 신청해서 친구들과 가보는 것도 서울대에서는 할 수 없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학생 수도 굉장히 적어서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같았습니다. 기숙사 환경도 굉장히 쾌적한 레지던스 느낌이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1인실이고 그 중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없는 방에 거주할 경우 공용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용주방과 화장실은 각 층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모두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데 저는 봄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한기 때문에 추워서 가을학기에 가시는 분들은 전기장판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의 경우 외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반면 마트 물가는 저렴해서 저의 경우는 대부분의 식사를 요리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방에 주방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생테티엔의 이케아에 방문하여 후라이팬, 냄비, 각종 그릇을 구매하여 생활하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기숙사에서 5분 거리의 까르푸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는 까르푸, 시내의 centre duex(쇼핑센터) 안의 Auchan이라는 대형마트에서 주로 장을 봤습니다. 가볍게는 가까운 까르푸에서 장을 보고, 가장 저렴하게 사려면 Auchan에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또한 생테티엔에 있는 아시안 마트 Pai Lenh에 가면 일본 쌀, 각종 라면, 김치, 조미료 등을 구할 수 있어서 여기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저는 1인용 밥솥을 챙겨가서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고추장, 참기름, 간장, 소금 등의 조미료는 챙겨갔었습니다.

생테티엔 내에서 시내를 방문하거나 학교를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트램이 있습니다. 교통권은 1회권(종류 무관하게 1시간 30분 이용), 10회권, Oura 카드(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버스나 트램 정류장에 있는 기계에서 1회권/10회권 구입, Oura 카드 충전이 가능합니다. 1회권의 경우 버스에 탑승해서 기사 아저씨께 현금을 주고 구매할 수도 있지만 기계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10회권이 10유로여서 1회권 10장보다 저렴합니다. 교통카드를 만들기 귀찮으시다면 10회권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교통카드는 생테티엔 기차역 Chateaucieux 역사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 5유로를 내야 하며 서류 작성도 해야합니다. 불어를 못하신다면 혼자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만들어놓으면 충전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기는 합니다. 또한 만든 후에 Our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테티엔에서 대중교통 경로 찾기는 구글맵으로 불가능해서 따로 moovizy 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경로 정보와 시간표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Chateaucieux 역에서 기차를 타는 일이 잦는데, 이 때 TGV max 또는 Carte jeune을 만들면 연회비를 내고 기차 탈 때 일정 비율 할인을 받아서 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Chateaucieux 역사 내부에서 만들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 Carte jeune을 50유로 연회비를 내고 만들어서 큰 비율은 아니지만 파리 왕복 한번만 갔다와도 50유로보다 더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Chateaucieux 역에서 OUIBUS를 한 번만 타면 바로 리옹 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리옹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Goeuro 어플에서 유용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MSE의 봄학기는 4월 중순에 부활절 휴가로 일주일 정도의 방학이 있습니다. 이 방학과 앞뒤로 수업이 없는 날을 활용해 긴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도 매주 시간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말을 꺼서 학기 중에도 여러 번 프랑스 국내 및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하시면서 친해지는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시면 좋습니다. 기숙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Laser Game Evolution 이라고 레이저 게임장이 있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팝가수들의 공연이 한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저는 리옹에서 열린 Ed Sheeran 콘서트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봄학기에 갔음에도 초반에는 굉장히 추워서 4월까지의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5월즈음 돼서야 조금 따뜻해지고, 6월에 급격하게 더워집니다. 생테티엔은 지대가 높아 상대적으로 근처 리옹 같은 도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특히 가을학기에 가신다면 추위에 잘 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종강하고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짐을 택배로 미리 한국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이 때 유용하게 이용한 한국-프랑스 배송 대행 업체가 ‘고프랑’입니다. 직접 라포스트(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려면 무게 제한도 타이트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저는 20kg 박스를 한국으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5. 총평

대학생활 중 교환학생은 한 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무작정 신청해서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자취를 하는 정도의 자립심보다 훨씬 큰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 저도 서툴지만 계속해서 외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두려워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유럽 각지를 여행다니며 저 자신에 대해 한층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리상의 제약은 있지만 다른 나라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SNS를 통해 소식을 주고 받고 여전히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프랑스에서 값진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으로서 넓은 세상을 보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제교류 프로그램 담당자 분들, 프랑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한우석 교수님,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공과대학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